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14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73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34군부대를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1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3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군인들속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신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교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 부식물창고, 세목장, 세탁소, 버섯재배장을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서 회관과 교양실을 잘 꾸리고 정치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후방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후방공급사업을 짜고 들어 훌륭한 급식조건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군관들과 안해들이 ≪병사들을 위한 날≫을 잘 운영하여 병사들에게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 있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 하시면서 이런 훌륭한 미풍은 전사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속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풍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시찰을 마치신후 부대의 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에게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박기서차수와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등이 동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2일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 기념주화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금화

은화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장엄한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기념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 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하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뜻 깊은 계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7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으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백전백승의 당과 혁명무력을 가진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빛날것이며 새 세기에도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여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하고 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세기를 이어 고수하고 훌륭히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고 우리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전투를 힘차게 벌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 같은 념원과 의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발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은 기념주화를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것이다.

2.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규격과 그림풀이, 조성을 승인한다.

주체91(2002)년 4월 3일

조선중앙통신 4월 12일

2 노작
-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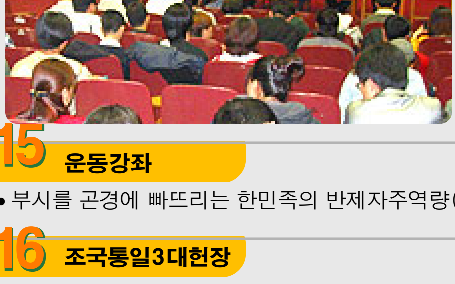
4 세기와더불어
- 6장 3절 기쁨과 슬픔

6 칭송
- 조국이 없으면 총련도, 오늘의 행복도 없다고 하시면서
- 군민아리랑
-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7 구국의 소리
- 황폐화되는 땅을 두고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12일
- 노사평화협력제안을 해부해본다
- 미제의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3)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12일 보도

12 아리랑뉴스
- 발전노조, 노조탄압 지속시 제2의 총파업 강행할 것
- 불법 알몸수색 규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 대우조선 불법파견저지 및 노조활동폭력탄압 규탄대회
- 한총련, 합법화 촉구
- 한총련대의원대회, ≪진보정당 대토론회≫진행
-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



15 운동강좌
- 부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8)

16 조국통일3대현장
-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4)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4)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 주체71(1982)년 10월 17일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투쟁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 투쟁인 것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적으로 강한 투쟁을 벌린 결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당사업 전반에 구현되고 당사업기풍이 일신되었다. 전당에 혁명적 기백이 약동하고 모든 사업이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는 더욱 불패의 것으로 강화되었다.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진하는 혁명적 당으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것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연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 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영도적 역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옳게 움직여 나갈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는 그 어떤 무정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움직여나자면 당과 같이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 역량의 정치적 영도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적 영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 수 없다.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분야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당과 같은 향도적 역량의 영도가 없이는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옳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나라 혹은 일부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어도 외부의 원쑤들의 침략위험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 수 없다. 당과 같은 향도적 역량의 영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 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영도해나갈 수 있다.

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의 건설역사는 곧 당을 주체사상화하여온 과정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역사적 투쟁의 계속이며 그 높은 단계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변함없는 혁명적 신념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도따라 나아갈 때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 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앞길이 개척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헤치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살며 싸워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 신념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한 것이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신 것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후대들이 대를 이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당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당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 있으며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가 바뀌어 지고 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다. 현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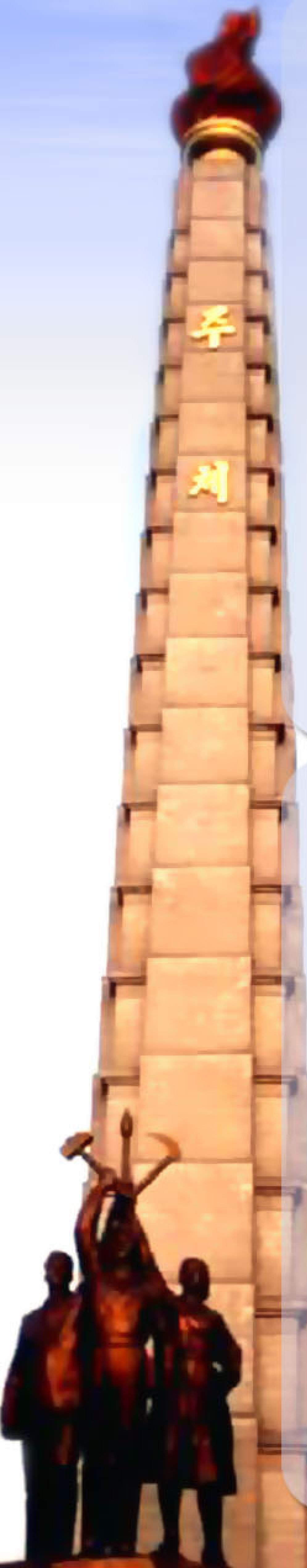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것이다.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모든 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귀착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귀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도를 따라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혁명적 신념을 지니고 그이께 충성다하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과 따르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그것은 오랜기간에 걸치는 유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 것으로 하여 끝없이 풍부하고 고귀한 것이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장 굳건한 조직사상적 터전위에서 강화발전될 수 있었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으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의 전도도 이 위대한 혈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현세대뿐 아니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이론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굳건히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당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운동역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등 당의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당원들은 조선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할 전위투사들이다.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 당대열안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대열이 당적 세련이 부족한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있는 조건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다.

당조직들은 전당에 세워진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원들의 당생활 수준을 더욱 높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키워오신 우리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밖에 다른 사업방법과 작풍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당안에는 아직도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남아있어 당사업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

당이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지 못하면 점차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들과 이탈되어 나중에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뿌리빼야 한다.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적 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은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당일군들은 아래 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칠줄 알아야 한다.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려면 주체의 당사업이론과 방법론을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당사업이론과 방법론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독창적인 당사업이론, 당사업방법론이다. 주체의 당사업이론과 방법론을 깊이 체득하여야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 수 있으며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당이 관료화, 행정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영도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을 언제나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어머니당으로,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는 대중의 기수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 보람찬 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투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기풍이다. 우리는 백두영봉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따라 계속 굴함없이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끝

정치사전

조선로동당 (3)

1980년대에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보다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자주적인 당이며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위력한 당이며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밑에 그들을 불러 일으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불패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류례 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헤치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 발전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틀어 쥐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며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렸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들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도 하고 거창한 경제건설사업도 령도하여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 오는 행정에서 더욱 세련되고 로숙해졌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꿋꿋이 전진하며 인민들의 모든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력은 날을 따라 더욱 힘 있게 과시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 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에 기여한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의 전도는 양양하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끝)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리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3. 기쁨과 슬픔

반일인민유격대의 남만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우사령부대에서도 200명으로 편성된 구분대를 통화지방을 파견하였다. 이 구분대의 인솔자는 류본초선생이었다. 우사령이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류본초참모장을 남만으로 보낸 목적은 당취오자위군과의 합작을 실현하여 자위군을 통하여 무장을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그 당시 우사령은 무기의 부족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료녕성에 본거지를 둔 남만지방은 자위군은 우사령의 구국군부대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원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사하에 찾아온 류본초선생은 자기들도 남만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목적지도 같으니 기왕이면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자기네와 동행하면 당취오와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당취오와 련계를 가지면 무기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류본초선생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사실 우리한테도 무기는 얼마든지 필요하였다. 구국군과 함께 남만으로 가게 되면 로상에서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조우하여도 충돌을 피하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당취오는 원래 동변도 성방군 1련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9.18사변후 항일구국을 표방하는 료녕민중자위군을 조직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당취오의 자위군은 통화지방에 활동거점을 두고 남만일대를 중심으로 심양주둔 관동군부대와 힘에 부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국민부산하의 조선혁명군 부대들과도 련합작전을 조직하군 하였다.

조직초기의 료녕민중자위군는 기세도 높았고 전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세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난관이 중첩되자 당취오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제련맹이 릿튼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여 9.18사변의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일본군은 이에 별로 큰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1932년 정초에 금주를 점령한 일제는 그해 1월 3일 음모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상해사변을 도발하였다. 그들은 5명의 일본승려가 상해 홍구에서 구타를 당한 것을 구실로 삼아 중국의 공장과 상점들을 파괴하고 경찰들을 살해하였으며 뒤이어 해군륙전대를 동원하여 상해시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이 상해사변을 도발한 목적인 이 도시를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일본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전격전의 방법으로 상해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전과를 타고 중국의 전령토를 일거에 삼킬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다.

상해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즉시에 영웅적인 반격을 가세하여 일본침략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장개석과 왕정위를 수위로 하는 국민당반동정부의 배신적인 매국정책으로 하여 항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상해사변은 굴욕적이고 반혁명적인 ≪송호협정≫을 맺는 것으로 막을 내리었다. 상해항전의 실패는 구국군과 자위군을 비롯하여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저락시키었다. 상해사변과 ≪송호협정≫ 체결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당정부의 반동적인 매국배족정책은 항일구국력량앞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로 되었다. 국민당반동집단은 상해항전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범죄시하였다. 장개석과 왕정위는 제19로군에 대한 군수물자보급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전국각지에서 상해로 보내오는 원호금을 압수하면서도 해군에 비밀지령을 내려 일본측에 식량과 채소를 공급하는 수치스러운 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은 자신들이 항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민들도 항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자들의 총구는 언제 어디서나 항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항일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국민당의 테로를 당하든가 그들의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다. 장개석은 일찌기 중국이 제국주의의 손에 망한다면 우리들은 망국노는 될지언정 그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지만 만일 공산당의 손에 망한다면 노예로조차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장개석과 그를 두목으로 하는 반동집단이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보다 인민혁명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노복이고 앞잡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장개석의 매국행위는 국민당과 이러저러하게 련결되어있고 또 구군벌과 관료, 정객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은 구국군과 자위군의 상층에 사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었다. 확대일로의 궤도를 달리는 일본군의 위력도 구국군의 사기를 저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릿튼을 필두로 하는 국제련맹조사단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만주를 일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국제공동관리하에 둘 데 대한 제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전투행동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의 무력은 점차 산해관과 북부만주방향에로 육박하였다. 그들은 북만의 넓은 지역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면서 열하방면으로 력량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북만진공을 앞두고 관동군의 특무기관들을 발동하여 동북군을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며 특무들을 통한 매수, 음모활동으로 북만 동북군의 각 려단이 사분오렬되어 서로 의심하거나 권력쟁탈에 몰두하게 하였다. 적들은 마점산을 칠 때에는 소병문을 끌어당기었고 마점산이 패한 다음에는 소병문을 일격에 소멸하는 식으로 북만의 반일부대들을 손쉽게 각개격파하였다. 북부만주일대에서의 반일부대의 와해과정은 동만의 왕덕림이나 남만의 당취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취오는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에 편승하여 항일구국의 기반을 들었으나 대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고 대세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었다. 그 당초 정초, 리두, 형점청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반일부대의 두령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연맹에 의거해야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포로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어 ≪장학량이 일본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공산비적을 숙청하기 위해서다. 공산비적을 먼저 숙청해야 일본군도 쫓아낼 수 있다. 공산당이 일본놈을 끌여들였다.≫는 엉터리주장까지 하였다. 우리가 남만으로 떠나던 그해 봄에 주보중이 자위군에 잡힌 적이 있었다. 주보중은 그때 자기를 체포한 지휘관들에게 당신네 부대를 왜 자위군이라고 칭하는가고 문의하였다. 질문을 받은 자위군의 우두머리들은 자위란 자기 력량을 보위한다는 말이다. 자기 력량을 보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군을 치겠는가. 일본놈들이 우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도 치지 않는다. 자위란 이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위군의 사고방식이었고 정치적 견해였다. 신심을 잃고 동요상태에 빠진 당취오는 산하부대들을 통솔하지 않고 방임상태에 두다싶이 하였다. 이런 때에 우사령이 류본초를 자위군본부에 파견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첫날 행군로정을 짧게 잡고 6월 초사흗날 오후에 소사하를 떠난 원정대는 사하(하소사하) 농민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도강을 건너 류가분방이라는 마을로 행군해갔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밤 묵음으로써 정치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넓다란 제분소 앞으로 앞마당에 우등불을 피웠다. 유격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린접부락의 사람들까지 류가분방으로 찾아왔다. 마을의 조직책임자들은 이집저집에서 멍석도 모아오고 이웃마을 손님들이 걸터앉을 강대며 서까래도 끌어왔다. 제분소마당에 모인 군중은 수백명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등불두리에 빽빽이 앉아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한 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 조직사업도 많이 하고 정치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그때처럼 무더기질문을 받아본 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목이 갈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군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되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은 것은 유격대가 어떤 군대이며 유격대와 독립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도 소사하에 한달전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같지만 거기에는 새로 탄생한 무장력에 대한 기대와 그 힘에 대한 반신반의의 감정의 깔려있었다. 독립군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이고 반일인민유격대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복잡하게 유격대라는 것을 따로 내올 필요는 무엇인가? 독립군도 어쩌지 못하는 일본군대를 유격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거꾸러뜨릴 승산은 있는가? 승산이 있다면 그 담보는 무엇인가? 독립군에게서 시달림도 많이 받고 독립군의 실패에서 암담한 절망감도 수없이 맛보아온 류가분방의 군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요컨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될수록 쉽고 간명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반일인민유격대란 별다른 군대가 아니다. 말그대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로써 무어졌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사명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는데 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의병과도 다르고 독립군과도 다른 새형의 군대이다. 독립군의 지도사상이 부르조아민족주의라면 항일유격대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다. 공산주의사상이란 쉽게 말하여 빈부귀천의 차별을 모르고 만사람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세운다는 사상을 말한다. 돈있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이 독립군의 이상이라면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리상이다. 독립군이 여러분과 같은 평백성들을 광복운동의 협조자로, 동정자로 보아왔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주인으로 보고 있다. 독립군이 외부세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으로 빌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더 믿고 그 힘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 의병의 뒤를 이어 독립군이 그동안 만주산야와 조국의 북부지대에서 십수년동안 일본침략자들과 혈투를 벌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군의 군세는 점점 허약해지고 지금은 그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였다. 독립군이 이루지못한 조국광복의 성업을 우리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조직한 것이 바로 반일인민유격대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을의 한 청년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병력이 몇 천명쯤 되는가고 물었다. 초기여서 몇 천명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명쯤 된다, 지금은 유격대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조만간에 수천수만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청년은 내말을 듣고 나서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특별한 절차나 격식은 없다,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 준비는 좋아야 한다, 입대는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러명의 마을청년들이 즉석에서 나를 에워싸고 우리가 입대를 청원하면 이 자리에서 받아주겠는가고 물었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횡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입대하더라도 당분간은 무기가 없이 지내야 하겠습니다. 무기는 전투마당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입대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청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수락하겠습니다.≫청년들은 무기가 없어도 좋으니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여러명의 마을 청년들을

선대원으로 흡수하게 되였다. 그것은 류가분방이 청소한 우리 유격대에 준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였다. 우리는 이 선물앞에서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동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두사람, 세사람의 동지를 잃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던 당시의 형편에서 열명 가까운 청년들은 단꺼번에 대오에 받아들였으니 그때의 우리 심정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눈을 움켜먹으며 풍찬로숙에 어려운 길을 걷는 혁명가들에게는 부르조아지나 시정배들이 맛보지 못하는 고유한 향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전우를 얻게 될 때에 느끼는 가슴을 뻐근하게 하는 정신적 충만감이다. 어제까지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사선을 헤치고 입대를 청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에워주면서 속세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숭엄하고 장쾌한 희열을 느끼였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식의 기쁨이고 향락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날밤 유격대원들은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락회를 열었다. 나와 차광수도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처럼 품을 얼마들이지 않고서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9.18사변 직후의 민심이 그만큼 항일유격대에로 크게 쏠리고 있었던데 기인한다.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조선사람은 여기서도 마음놓고 살 수가 없게 됐다. 만주에서도 기를 펴고 살지 못할 바에는 죽든 살든 한번 결판을 내보자라는 것이 그 당시 조선청년들의 공통된 심리였다. 우리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우등불곁에서 명석과 삿자리를 펴고 유격대 조직후 처음으로 되는 로숙을 하였다. 조선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유격대가 로숙을 하면 류가분방백성들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막 야단을 하였으나 우리는 조직책임자들이 알선해주겠다는 농가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로천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을사람들의 청을 사양한 것도 사실이지만 혁명가는 따뜻한 아랫목의 보금자리보다 거치른 잠자리를 더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랑만적인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마다하게 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이 마을에서 하루밤 숙영하였다. 그 때 우리가 숙영한 곳은 려수문이라는 중국로인의 집앞이였다. 그 집앞에 큰 감자굴자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감자굴자리에 곡초를 엮어 바자를 두르고 그안에서 불을 피우며 하루밤을 지냈다.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지에서 밥도 해먹고 잠자리를 정하는 것을 본 려수문 로인은 나를 찾아와 부대가 다 움직이기 곤란하면 대장만이라도 자기방에 가서 류숙하자고 권유하였다.

≪성주선생이 나하구 생판 모르는 남남이라면 몰라도 우리야 구안도에 있을적부터 서로 낯을 익혀온 사이가 아닙니까?≫ 로인은 나까지 그렇게 에누리를 하지 않을 줄은 몰랐노라고 하면서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사실 나와 그 로인은 서로가 구면이였다. 우리 집 식구들이 마춘욱의 객주집 웃방에 거처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려수문 로인을 두세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로인이 보여준 활달하면서도 열정적인 기품이 내 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로인은 항일을 하려고 천리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가 한지에서 숙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불속에 기여들어가겠는가고 하면서 밤이 깊도록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었다. 류가분방사람들이 대체로 그런것처럼 그도 시국에 민감하였다. 그는 9.18 사변후 일본군대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조작해내였다는 것과 장춘을 신경이라 고쳐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부의를 데려다 앉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로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이다. 로인은 말하기를 조선의 렬사들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위인은 안중근이라고 하였다.

≪안중근선생이야말로 동양의 거인이지요. 오죽하면 원세개대총통까지 안의사의 의거를 칭송하는 시를 지였겠나요.≫ 로인의 이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한 다음부터 만주지방의 중국인들속에서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중국인유지들은 집에 안중근의 화상까지 걸어놓고 신주처럼 모시였다.

≪로인님은 조선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안중근을 그리도 잘 아십니까?≫

려수문이 안중근에 대하여 너무도 큰 애정을 가지고 말하므로 나는 슬며시 이렇게 물었다. ≪만주에 사는 사람치고 안중근을 모르는 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할빈역에다가 안렬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말한 사람까지 있었겠나요. 나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늘 말하군합니다. 혁명가가 되겠거든 손중산선생과 같은 혁명가가 되고 대장부가 되겠거든 안중근과 같은 대장부가 되라구말이웨다. 김대장님. 이왕이면 부대를 무은바엔 관동군사령관과 같은 거물들을 요정내지 못합니까?≫

나는 로인의 순박한 말을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까짓 관동군사령관이나 하나 없애버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등박문을 죽이면 새로운 이등박문이 나오듯이 혼죠를 죽이면 새로운 혼죠가 또 나올 게 아닙니까. 테로로써는 큰일을 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장어른은 어떤 방식으로 싸울 작정입니까?≫

≪광동군이 십만이 된다니 그 십만을 상대로 싸울 작정입니다.≫

려수문로인은 그 말을 듣더니 몹시 감격하여 내 손을 꽉 그러잡고 놓지 않았다.

≪김대장, 참으로 훌륭하시오. 대장어른이야말로 안중근과 같은 분이 아니겠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나는 안중근이처럼 훌륭할 수는 없지만 망국노의 생활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날 유격대가 마을을 떠날 대 려수문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멀리까지 대로를 바래주었다. 나는 류가분방을 생각할 때마다 려수문로인을 만났던 때의 일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류가분방을 떠난 우리 부대는 이도백하부근에서 다시 하루밤 숙영하고 도로를 따라 행군을 계속하다가 무송에서 안동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제침략군의 척후대와 불시에 조우하였다. 우리는 행군할 때마다 앞장에 3-4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척후대를 배치하군 하였는데 그 척후대와 일본군의 경계구분대 사이에 화력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하였다. 유격대가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하는 조우전이였고 또 그것도 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대와의 첫싸움이였기 때문이다. 소영자령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매복전으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였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달랐다. 상대는 어수룩한 위만군이 아니라 실전경험이 풍부한 영악하고 민첩한 일본군이였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단 한번의 전투경험밖에 없는 조학도들이였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은 조우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때였다. 원정의 목적으로 보나 유격전의 기본원칙으로 보아도 장거리 행군과정에서 될수록 아군의 행동에 불리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익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았다. 옛날병서에서도 ≪피실격허≫라고 하였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은 치라는 말이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부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결심을 기다리자는 것이였다. 나는 적의 기본력량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리한 지형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전투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척후대가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고지 북쪽능선으로 부대를 재빨리 이동시켰다. 그다음 일부 력량을 도로 남쪽으로 진출시켰다. 부대는 도로의 남쪽과 북쪽에서 일제사격으로 척후대를 족쳤다.

적의 행군종대가 미구에 장구류들을 잔뜩 짊어지고 신작로로 달려오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한개 중대는 잘 되었다. 적들은 척후가 녹아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포위하려 하였다. 나는 신호총을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시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적들이 화력권안에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면서 전방을 감시하였다. 우리에게는 탄알이 얼마 없었다. 내가 신호총을 쏘자 전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나는 사방으로 터져오르는 총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원들의 정신상태를 가늠하려고 애썼다. 개개의 총성에는 흥분되고 앙양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전사들의 기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력량상 우세를 믿고 신속히 전투서렬을 갖추면서 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진지량측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나는 도로 북쪽과 남쪽에 배치된 무력가운데서 일부 력량을 떼내어 아군의 량익측으로 재빨리 기동시키였다. 대원들은 진지를 차지하기 바쁘게 민속한 저격전으로 익측의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악하고 끈덕지게 아군이 차지한 계선으로 그냥 기여들었다. 우리가 통선아래로 바위돌까지 굴리면서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을 계속하였다. 적의 공격이 조금 약화된 기회를 타서 나는 전부대에 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수림을 뒤흔드는 나팔소리와 함께 릉선을 번개같이 치달아내린 유격대원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사정없이 족쳐버렸다. 몇명의 도주자를 제외한 적의 한개 중대력량은 우리의 돌격 앞에서 전멸을 모면할 수가 없었다. 김일룡은 육박전을 하면서도 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또 한놈 넘어간다!≫하고 환성을 올리군 하였다. 우리 유격대에서도 여러 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름모를 산등성이에 전우들을 안장한 우리는 그들의 무덤 앞에서 영결식을 가지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결사를 하였다. 그 때 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말을 끝내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대원들의 어깨가 세차게 떨리던 광경과 대오의 길이가 류가분방을 떠날 때보다 퍼그나 짧아진 것을 보고 온몸에 전률을 느끼던 일만이 기억될 뿐이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 나는 대렬에 다시 출발구령을 주었다. 모두가 길가에 정렬하였는데 차광수만은 무덤에 엎드려 있었다. 주인없는 무덤, 칠성판 하나 깔아주지 못한 어설픈 무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릉선으로 뛰어올라가 차광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광수! 왜 이 모양이요. 일어나지 못하겠소.≫

나의 고함소리가 어떻게나 크고 모질었던지 차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음성을 낮추어 귀속말로 그를 타일렀다. ≪대원들이 모두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데 칠전팔기의 기개는 다 어디갔소?≫

차광수는 눈물을 씻고 대렬앞장에 묵묵히 걸음을 떼였다. 그후 나는 이때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안도-무송현경 전투를 치른 후 넉달이 지나 차광수가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 맨 선참으로 내가 상기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왜 차광수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던가. 다르게 말해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기는 내 자신도 전우들을 잃은 다음 며칠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다.

전사한 대원들은 모두가 ≪ㅌ ㄷ≫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의 길을 걸어온 골간이고 핵심들이였다. 희생이 없는 투쟁이란 물론 있을 수 없다. 혁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평화적인 로동에서도 이러저러한 손실이 생기는 법인데 항차 모든 병기와 수단들이 총동원되어 승패를 다투는 무장투쟁에서야 어찌 죽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도-무송현경에서 당한 희생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였다. 혁명이 아무리 가혹한 희생을 동반한다고 해도 방금 첫시작을 뗀 우리 대오에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인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열명미만의 유생력량을 잃어버린 그닥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단 한번의 싸움으로 전사자가 천명도 나고 만명도 나는 현대전에서 십단위의 인명손실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우들을 잃었을 때 그 손실을 산수적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다. 산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는 수단으로 될 수가 없었다.

우리와 함께 투쟁의 길을 걸은 개개의 투사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였다. 유격대원 한 명과 적 100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였다. 적들은 국가의 법과 동원령을 발동하여 하루사이에도 수천수만명의 병력을 모집하여 대량적으로 싸움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 수단이나 강권이 없었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 해도 혁명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대로 천금맞잡이였다.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의 동지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한명의 전우를 얻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조직된 대오를 묶어세우자면 실로 고심참담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비록 그것이 100명의 적을 소멸한 승리한 전투라고 해도 아군에서 한명의 희생자가 나면 그 전과를 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력사가들은 안도-무송현경 전투를 조우전을 령활하게 반공격으로 전환시켜 한개중대의 적을 완전히 소멸한 성공적인 전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승리한 전투였다. 이 전투의 의의는 비단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한개중대의 정규군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였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격투쟁 사상 처음으로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의 신화를 깨뜨려버렸다는 거기에도 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일본군이 강한 군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무적도 아니고 불패도 아니며 불퇴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유격전의 특성에 맞는 전법으로 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한다면 적은 력량을 가지고서도 강대한 일본군을 얼마든지 타승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그러나 ≪ㅌ ㄷ≫ 의 첫 산아들을 열명 가까이 잃어버린 이 전투에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한개 중대의 적을 소멸하는 데 열명 가까운 전우를 잃어버렸다면 조선과 만주에 있는 10만이 넘는 일제침략군을 타승하는 데는 얼마만한 희생을 당해야 하겠는가!)

초연이 채 가셔지지 않은 안도-무송현경의 전장을 떠날 대 나는 동지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릉선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조우전을 치르고 나서 유격전쟁을 하느라면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달았다. 안도-무송현경 전투가 있은 후 우리가 십수년동안 하여온 항일전쟁은 실지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기존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끝)

일화

조국이 없으면 총련도, 행복도 없다고 하시면서

1990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봄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4월에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난 기간 해외에서 조국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기울여 온 노력은 매우 귀중한것이며 또 조선민족으로서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기때문입니다.≫

방안에는 숭엄한 감정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을 바라 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국이 없으면 총련도 없을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영광과 행복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총련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에게는 어머니조국의 귀중함이 더욱 뜨겁게 안겨 왔다.

그들모두가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며 뜨거워 지는 가슴을 달래고 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온 방안을 한가득 울렸다.

≪조국이 없었던탓으로 지난날 여러분들은 일본땅에서 갖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비록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떳떳하게 살아 가고 있으며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 다른 나라에서 오래동안 살다가 80고령이 지나서야 조국을 잊지 못하여 찾아 온 어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도 조국땅 절반에라도 인민의 참다운 정권이 세워 져 있기때문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 갈 어머니의 품이 있는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진정한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흘러 간 옛 세월 망국의 한을 품고 천만리사방에 흩어 져 갔던 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주며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이역의 한끝으로 불리여 가 민족적인 소중한것들을 잃고 설음과 울분에 눈물 짓던 사람들도 모두 찾아 내여 조선사람으로 기를 펴고 떳떳이 살게 해 준 위대한 품, 그 품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이 아닌가.

조국과 총련, 조국과 재일동포들의 운명, 그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리의 결정체였다. 만약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품이 없었더라면 재일동포들은 오늘과 같은 총련의 조직과 보람찬 삶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은 재일동포들의 삶의 요람이고 행복의 상징인것이다. 총련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은 그 시각, 이 위대한 진리를 더욱 가슴깊이 새기면서 옳바른 조국관을 가지고 애국의 길에서 참된 삶을 꽃 피워 나가는 결심을 가다듬었다.

송가

군민아리랑

군대가 생겨 몇천년인가
그 세월 군가는 많았어도
군대는 민중의 아들딸이요
민중은 군인들 친부모형제요
가슴 살아 터치는 이런 노래 있었던가

처음 보고듣는 선군시대 애창곡
바로 장군님 키우셨다오
병영길 걸으시며 햇살뿌려 한자 한자
수령길 밟으시며 별빛내려 한소절 한소절
군민의 마음속에 지어주셨다네

명곡중의 명곡이라오
병사들 머물렀던 자리에는
발전소가 돌며 아리아리랑
민중들 찾는 고지들은
필승용맹 솟구쳐 스리스리랑

싸움의 날 오면 이 노래
침략자들 멸망 알리는 아리랑되고
고지들에는 승전고 올리는 스리랑되리
멋지셔!
장군님 울려주신 군민아리랑
탁월해!
장군님 펴시는 주체의 군사예술

흠모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 윤 피터슨이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7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세계진보적인류가 주석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주석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과 그이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이 오늘처럼 강위력한 나라로 전변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 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세계공산주의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며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세계직업련맹 총서기 알렉싼드르 자리꼬브가 ≪세계로동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김일성**주석은 격동하는 20세기의 한 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인간해방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며 천만년 인류의 앞길을 밝혀 주신 태양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에 공감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숭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쓰고 **김일성**주석은 만민의 하늘,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쳐 주신 자주화의 구호는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기본추세로 되고 있는 현 시대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세계직업련맹의 유일한 수호의 길, 승리의 길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을 숭배하는 진보적인류는 그이께서 태양처럼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세계를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 주실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 세계를 놀래울수록 그이를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은 소망은 더더욱 절절해 진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원히 세계로동자들과 함께 계신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김일성**주석은 통일조선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조선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령도자를 모시고 있기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며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썼다. 그는 자기가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나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후부터였다고 하면서 진보적인류로부터 가장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 받으시는 그이를 만나뵙던 영광의 순간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주석께서 자기를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조선의 통일방안과 원칙,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이의 말씀들에서 주석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며 끝 없는 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였다고 썼다. 그는 오늘 조선의 통일위업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조선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각하의 남다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 온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더 과감히 일 해나갈 결의를 피력 하였다.

황폐화되는 땅을 두고

이번에는 경기 환경운동단체에서 일보시는 김진아씨의 글 ≪황폐화되는 땅을 두고≫를 신은경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산좋고 물좋아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왔다.

어디를 가나 천하절경이며 어디를 둘러봐도 경치가 빼어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자자손손 가꾸고 지켜가야 할 우리의 강산이며 민족의 유산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양키침략자들에 의해 민족의 재부인 우리의 귀중한 강토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잃고 병들어 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의청서에서 맞은편 **산 중턱을 바라보노라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향보산 중턱 절벽에는 가로 세로가 10미터 크기의 흰색으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부대의 마크가 흉물스레 그려져 있다.

**군에 있는 수락산일대의 크고 작은 바위들에도 미군부대의 마크와 명자낙서들이 지저분해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저들이 둥지 틀고 있는 120여개의 미군기지들에서 이 땅의 경관을 마구 헤치다 못해 온 강토를 아예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처럼 깨끗하고 티한점 없던 우리의 강들에는 주한미군에 의해 독극물이 무시로 흐르고 있고 땅속 깊은 곳에는 지하수물들도 유독성물질에 심히 오염되어 있다. 가을이면 탐스러운 벼이삭을 아름이 넘게 안겨주던 기름진 우리의 땅도 미군에 의한 온갖 폐유방출로 꺼멓게 병들었다.

산은 어떤가. 울창한 숲을 이룬 나무들로 풍치수려했던 우리의 산이 가는 곳마다 주한미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볼상 사납게 파헤쳐졌고 옛자취를 찾아볼 수 없이 번들산이 되어 버렸다.

정말 주한미군의 무지막지한 군화발과 무한궤도에 짓뭉개져 우리의 강토는 몸살을 앓으며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나뿐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들이 대대손손 가꾸며 살아가야 할 귀중한 우리의 강토이다.

그런데 바다 건너와 남의 땅을 총칼로 강점한 미군에 의해 귀중하고도 소중한 민족유산들이 파괴되고 온 강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

지금 미국이 이 땅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 핵무기저장고로, 전쟁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양키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저들의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 그렇게는 될 수 없다. 우리 민중은 동족인 겨레를 겨냥한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이 땅이 파헤쳐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횡포무도한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의 강산이 파괴되는 것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고 또 내가 살고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우리의 강토, 우리의 민족유산이 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피묻은 미군의 군화발밑에서 우리의 강토가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민족유산이 더이상 양키들에 의해 욕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한미군완전철폐의 머리띠를 매고 반미투쟁에 나섰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0일~12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12일

연합토지관리계획철회 요구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는 용산미군기지와 매향리폭격장 등 일련의 미군기지철수문제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의 요구를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 굴욕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번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장기주둔 및 미사일방어체제실현을 위한 전면 재배치를 노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미군기지반환과 철수문제가 민족의 이익을 무산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했으나 정반대로 됐다면서 이는 도저히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성명은 또한 미군을 몰아내고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을 규탄
경기남부총련

경기남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은 8일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호전세력들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이것은 철두철미 반민족적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인 민족문제, 통일문제라면서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통일세력들의 계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호전분자들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북침략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선언이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분열과 대결의 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친일로 뼈가 굳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이회창의 성장과정은 친일친미로 일관돼 있다면서 7천만 겨레는 이회창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온 민족의 이름으로 그를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고 한나라당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교과서왜곡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촉구
일본교과서바로잡기본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명은 11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 일본교과서왜곡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측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규정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교과서 최신일본사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교과서재수정을 일본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를 투명하게 구성, 운영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회창은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시민단체의 한 인사

시민단체의 한 인사가 이회창은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극우익보수분자인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써보겠다고 경선에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세에 처한 이회창은 보수대연합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회창은 심지어 국민의 배척을 당한 자민련총재 김종필을 한나라당총재로 영입해 대선후보로 나서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망국적인 보수에 집착하려는 인물은 절대 반대한다.

새 세기에 맞게 진보와 자주, 통일지향적인 인물이 대권주자로 나설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인물에 지지표를 찍을 것이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극우익적인 친미친일분자이고 6.15공동선언을 파괴하고 남북대결과 전쟁위험을 조성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대통령병에 걸려 돌아치는 이회창은 철면피하고 가련한 자이다. 이회창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까지 이회창필패론이 대두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회창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만일 이회창이 집권하면 전쟁이 터질 것이라며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회창과 같이 극악한 반공반북히스테리는 처음 본다면서

≪이회창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며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려고 광분하는 이회창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전민족이 핵참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충견노릇을 하는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평화협력제안을 해부해본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평화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란 말을 도용해서 저들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을 분격케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계당국이 제안하고 있는 노사간의 평화협력이 바로 그겁니다. 노사간의 평화란 제도적으로나 계급적 견지에서 볼때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럼 왜 관계당국이나 사측이 노사간의 협력과 같은 어불성설을 그처럼 집요하게 들고나오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먼저 ≪노사평화협력제안을 해부해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들어와 관계당국은 경제도약을 위한 노사평화협력에 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에 명줄을 걸고 있는 그들은 올해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합심이라고 하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다짐하는 인사회를 연다,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 노사간의 평화협력을 제안한다하며 연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언론까지 발동하여 평화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면 노동자들의 생활향상과 부의 공정분배실현에서 기상천외의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애당초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부익부빈익빈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와 기업주간의 협력과 참여의 관계란 존재할 수조차 없다. 노동자의 피땀의 댓가로 살찌는 것은 자본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을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악덕업주들은 이 땅에서 실업대군이 늘어나는 상황을 악용하여 각종 악독한 방법으로 고용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이윤을 짜내고 있다.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초보적인 노동안전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사업장들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기아임금에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존엄있는 이름이 그대로 현대판 노예의 상징으로, 가난의 대명사로, 사회적인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의 한국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희생의 댓가로 살찌는 악덕업주와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피와 땀을 빨리우는 노동자가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이리와 양이 한 우리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다. 더욱이 관계당국이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기본권마저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 있는 여건에서 노사평화협력이란 어불성설이다. 역대적으로 권력과 자본은 단짝이 되어 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해왔다. 관계당국은 노동자들이 일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악법들을 만들어놓고 그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탄압해왔다.

그들은 악덕업주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전담만을 강요한다. 뿐 아니라 그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마저 불법으로 매도해 공권력을 발동한 탄압을 가차없이 일삼고 있다. 결국 가진자들 위주의 경제시책, 반노동자적인 정책만을 일삼는 관계당국이 그 무슨 평화협력에 관해 걸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강변인 것이다.

관계당국이 떠들어대고 있는 노사간의 평화협력이란 이 땅에 노동자들을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 희생물로 고스란히 내맡기기 위한 유혹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4년전 이 땅에 고의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은 저들이 주도하는 아이엠에프를 내세워 대대적인 구조조종을 강요했다. 미국이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삽시에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생계터전에서 밀어내는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무섭게 몰아치고 이 땅에 사상최대의 실업대란을 일으켰다. 수백만명을 넘어선 완전실업자와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이 땅의 실업대군은 바로 미국의 강도적이고 교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종에 의해 산생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도처에는 실업대군이 휩쓸고 가진 것이란 맨주먹뿐인 노동자들은 무리로 굶어죽고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노동자의 희생에서 희열을 느끼며 지난해 식민지한국에서의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성과가 컸다고 하면서 올해도 계속 강도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더욱 오만하게 침탈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고창하는 노사간의 평화협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아메리카양키들의 전횡에 반항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만 하라는 사대매국적, 반노동자적 궤변이다.

지금 관계당국이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노사평화협력을 집요하게 들고 나온 것은 그 어느해보다 강도높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봄철투쟁진출을 사전에 막고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을 무난히 치루자는데로부터 나온 잔악한 저의의 발상이다.

그들은 노사간의 평화협력이라는 회유기만으로 노동운동권안에 분열과 와해를 조장시키는 한편 여론을 오도해서 탄압의 빌미를 만들어 강경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진출을 차단하고 나아가서 노동운동을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이같은 비열한 책동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가 그대로 허용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몇푼의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본의 영원한 임금노예로 전락되고 말것이며 노동운동은 좌초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회유기만도, 그 어떤 강권탄압도 자기 힘을 자각하고 자기 운명개척의 길에 나선 노동대중을 굴복시킬 수 없다.

봄철은 우리 노동자대중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투쟁의 계절이다. 우리는 봄철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위력으로 기만적인 노사평화협력의 강행을 좌절시키고 생존권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당면해서 봄철투쟁을 생존권투쟁에만 그치지 말고 미제의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키고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대중은 이미 투쟁을 통해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싸우면 승리한다는 자신심을 갖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싸워서 잃을 것은 식민지압제의 착취와 쇠사슬뿐이고 얻을 것은 인간다운 삶과 근로민중이 주인된 새 생활, 새 세상이다.

1300만 노동대중은 우리의 생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 노동해방가를 부르며 힘찬 반미반전의 대합성으로 대중투쟁의 종소리를 높이 울리자.

이 땅의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생겨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생겨난 이래 자본가는 더많은 이윤과 부를 위해 노동자는 자기들의 정당한 노동의 몫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는데요.

이들 사이에 평화협력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다면 노동자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순응하면서 묵묵히 죽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이상 자본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근로민중은 당연한 자기의 노동의 댓가를 찾기 위해 더 강렬하게 더 완강하게 투쟁할 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0일~12일

미제의 살육, 약탈, 파괴행위는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3)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4월 2일)

여성들에 대한 추악한 만행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각지에서 살인, 방화, 약탈을 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능욕강간하는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1950년 7월초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회동리에 침입한 미제침략군 5명은 이 마을 가정부인 김심순을 대구로 피난시켜준다고 트럭에 싣고 가다가 산골짜기에서 윤간하고 총살하였다.

7월 15일 충청남도 대전시 목동에 기여든 미제야수 2명이 한 여성의 집에 뛰어들어 가 그를 윤간한 것을 비롯하여 놈들은 시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수많은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능욕강간하였다.

7월 18일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에 침입한 미군 3명은 농가에 뛰어 들어 남자들은 피난 가라고 강요한 후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심지어 가정부인 김한녀를 강간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하였으며 충청남도 대전시 유천동에 사는 농민의 아내 이갑순이 앞내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 가 대문을 잠그자 미군야수는 담장을 뛰여 넘어 그를 강간하고 국부에 총을 쏘아 즉사시켰다.

7월 19일 미군야수 10명은 대전시에서 한 집에 뛰어 들어 남편을 강제로 내쫓은 다음 그의 아내를 산속에 끌고 가 윤간하여 인사불성에 이르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지역에 또다시 침입하여 수많은 부녀자들을 능욕강간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만도 875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다음 무참히 학살하였다.

9월 18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행직원 권백모의 집에 침입한 미제침략군 6명은 그의 처를 붙잡아다가 3일동안 감금해 놓고 윤간하여 실신시켰으며 10월말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송림동에 사는 최모의 14살나는 딸과 한모의 15살나는 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 것을 납치하여 1주일간 감금해 놓고 집단윤간한 다음 죽여 버리었다.

10월초 어느날 미제침략군 3명은 서울시 금곡동에 거주하는 40살난 과부 김씨의 집에 침입하여 아들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구타하면서 밤새도록 여성을 윤간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김씨노인의 집에 뛰어 들어 어린 소녀를 강간하려는 것을 제지시켰다고 하여 총탁으로 노인을 때리고 그의 얼굴과 목을 칼로 찔러 죽이었다.

12월 15일 서울에 사는 김인수의 옆집에 침입한 야수들은 여자의 몸에서 출생후 2주일된 어린아이를 빼앗아 방바닥에 내던지고 산모를 윤간한 다음 그것도 성차지 않아 다른 집으로 가서 어머니가 있는데서 그의 딸을 강간하였다.

12월 25일 서울교외 광장리에서는 미제침략군 3명이 무기로 위협하면서 50살나는 여성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이에 격분한 여성이 한 자의 생식기를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자 남아 있던 2명은 그 녀자를 총살하였다.

또한 12월말에 미제침략군 여러명은 삼간동 부락에서 처녀를 붙잡아 윤간하고 산속수풀속에 던져 버렸다.

이외에도 성북동과 은진리에서 300여명의 가정부인과 여대학생, 어린 처녀들이 강간당한 것을 비롯하여 미제침략자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부녀자들에 대한 능욕강간만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행되었다.

인민의 재산과 문화시설의 약탈, 파괴만행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재산과 문화시설에 대한 약탈과 파괴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1950년 7월 초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에 침입한 미제침략자들은 이 부락 인민들에게 피난 가라고 강요하여 내쫓은 다음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였으며 갈춘자의 집에 뛰여 들어 70살 그의 할아버지와 아들이 피난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권총으로 쏴 죽이고 집재산을 모두 털어 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 미제침략자들은 서울시 이태원일대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일하던 일군들의 가정 21세대와 의용군에 나간 가정 45세대를 습격하여 의복류, 침구, 가구, 식량 등 일체 재산을 약탈한 것을 비롯하여 습격약탈행위를 매일과 같이 계획적으로 감행하였다.

12월중순 미제침략군 3명은 남대문로 3가에서 한 회사원이 은행에서 타 가지고 오는 현금 25만원을 백주에 약탈하였으며 12월 26일 충무로 3가에서 미군야수들은 갈월동에 거주하는 임영동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원을 약탈하여 가지고 달아났다.

12월 27일 미제침략군 2명은 명동의 큰 길가에서 대낮에 회사원 지인봉을 권총으로 협박하여 현금과 소지품 등 40만원 어치를 강탈하였다.

지어 미제침략자들은 1951년 1월 3일 20여대의 자동차를 타고 돈암동에 침입하여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약탈하는 집단강도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1950년 7월 4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4대가 초급남자중학교, 고급남자중학교, 잠업기술학교에 기총사격을 가한 후 소이탄을 떨구어 불태워 버렸으며 15일과 16일, 19일 3일동안 경기도 평택시에 맹폭격을 가하여 평택인민학교와 병원 4개를 파괴하였다.

7월 16일과 20일, 23일, 30일 미군폭격기들은 맹폭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병원 14개와 교육기관 2개, 카톨릭교회 및 고아원 1개, 충청남도 대전시의 대전공업중학교 본관 14개 교실과 신관 8개 교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일체 교수용 비품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으며 대덕군 구즉면 구즉인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리 인민학교와 농업중학교, 이면에 있는 지정리 대신인민학교를 전부 파괴하거나 완전히 불태워 버리었다.

8월 4일 미제침략군 전투기 4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에 날아 들어 인민학교에 기총사격을 가하여 학교의 일부를 파괴하였으며 미군전투기 3대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공과대학을 폭격하여 그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8월 5일 남조선강원도 강릉시에 날아든 미군전투기 4대는 약 20차에 걸쳐 저공비행으로 무차별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강릉인민학교와 강릉상업중학교, 강릉옥적인민학교를 파괴하였을뿐아니라 기타 학교들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수십대의 미군폭격기들은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충청북도 제천읍 제천인민학교와 제천인민병원, 서울시 용산구 용산인민학교, 중구 세브란스병원의 일부와 간호원 기숙사 1동, 대방동의 병원 1개와 제약소 1개, 학교 2개, 인천시 인천자림극장, 전라북도 익산군 용안면 흥왕인민학교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15일과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와 제천군 제천면 활산리, 청원군 북이면에 대한 미군폭격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보천리인민학교와 활산리인민학교가 불타버렸으며 석성리인민학교와 내추리인민학교가 여러개의 폭탄을 맞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때로부터 8월 25일까지사이에 미제침략군 공중비적들의 야만적 폭격으로 수많은 문화기관 청사들과 기타 기관들이 심히 파괴되었는데 아산군에서는 병원 7개, 대덕군에서는 병원 2개, 학교 13개, 기타 3개의 문화시설, 연기군에서는 병원 6개, 학교 16개, 기관청사 15개, 천안군에서는 병원 4개, 학교 1개, 보령군에서는 병원 4개, 기관청사 6개, 논산군에서는 병원 14개가 파괴되었다. 이 기간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일대에서는 12차에 걸친 미제침략자들의 함포사격으로 근덕인민학교 및 기타 문화시설들이 파괴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 76개를 완전히 파괴 또는 불태워 버리고 79개 학교의 내부시설, 38개 병원과 의료시설들을 파괴하였으며 방송국 2개, 극장 6개, 박물관 1개, 신문사 4개를 불태워 버렸다.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종로의 종각과 덕수궁 석조전을 불태워 버리는 등 서울시내의 많은 역사고적들과 유적들을 파괴하고 경복궁안의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였던 신라시기의 금관을 비롯하여 많은 국보적 진열품들을 약탈하였으며 남산에 있는 민족박물관, 창경원박물관, 서울대학박물관의 귀중한 진열품들을 전부 약취 또는 파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덕수궁미술관에 진열하였던 유명한 고서화들을 전부 도적질하고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서울대학도서관 등에 있는 역사고서들과 귀중한 도서들도 불태워 버렸으며 인천영화관, 동방극장 등의 영사기와 기타 기구들을 약탈 또는 파괴해 버리었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후 남반부지역에서 감행한 야수적 살육, 약탈, 파괴행위는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무도한 것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승냥이들이 남반부지역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그들이 지금 떠벌이는 것처럼 결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말살을 목적으로 감행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육, 약탈, 파괴행위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같이 귀중히 여기는 조선민족은 결코 미제식인종들에게 당한 치욕을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민족은 천인공노할 미제의 죄행을 총결산하고 쌓이고 맺힌 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12일

공화국정부에서 태양절기념 연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11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과 대표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백남순외무상, 강능수문화상,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문재철위원장대리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양형섭은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상과 령도, 덕망의 위대성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의와 승리의 상징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계실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탁월한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는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여 조선인민에게 광복된 조국을 안겨 주시고 밝은 미래를 펼쳐 주시였으며 강력한 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 오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더 큰 번영을 이룩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은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

총련 남승우부의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남승우부의장은 10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레의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둘러 보면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들도 많고 명절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조국, 우리 민족과 같이 태양절을 가진 남다른 영광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태양절은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되고 있다.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90돐이 되는 올해의 태양절을 보다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준비사업들을 벌려 왔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온 세상에 만발하게 피여 나고 있으며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펼쳐 질 위인칭송의 노래소리가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민의 수령, 세련된 정치가이시며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통찰력과 예지, 걸출한 령도력,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그이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완전히 공인된것으로서 오늘도 인류를 경탄시키고 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발전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수많은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나는 해빛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민족은 세계진보적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칭송하며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할것이다.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맹세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맹세대회가 12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와 청년동맹일군들, 5만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경호 1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각 온 나라 청년들은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 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라는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김정일**령도자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줄 아는 열혈투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일심단결의 총폭탄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 나감으로써 **김정일**령도자의 가장 활력 있는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빛내일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헌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하여≫ 출판

최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문헌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체83(1994)년 7월부터 주체88(1999)년 7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와 론문 등 12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문헌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발현할데 대한 사상을 밝힌 로작들이 편집되여 있다.

또한 숭고한 도덕관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 **김일성**조선의 존엄을 더욱 떨쳐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을 담은 로작들도 수록되여 있다.

문헌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인민들속에서≫(62)를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

최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62)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오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해 온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인민군장병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 문화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쓴 회상실기 23편이 수록되여 있다.

회상실기들은 주석의 위대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부터 뛰여 난 인품과 소탄한 성품,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숭고한 풍모에 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중에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으로 살도록≫, ≪김책공업대학졸업생들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몸소 지어 주신 벼종자이름≫,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해빛 같은 그 미소를 안고 삽니다≫, ≪도서 (조선의 식물)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등의 회상실기들이 들어 있다.

금수산기념궁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평양의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오랜 기간 계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던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이다.

조선에서는 주석의 서거 한돐(1995년 7월 8일)을 맞으며 그이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려는 전체 인민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따라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개관하였다.

인류가 도달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총동원하여 건립한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석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존하는것으로부터 내부의 모든 대상과 세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 졌다.

주석의 립상을 모신 홀과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 18메터 대계단 그리고 울음홀과 주석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시던 승용차와 현지지도를 이어 가시던 렬차가 보관된 홀 등 모든것이 주체의 최고성지의 품격을 훌륭히 부각시켜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금수산기념궁전에는 근 1, 000메터의 외랑과 근 10만평방메터의 광장, 화강석통돌로 만든 수백메터의 울타리와 돌대문, 울창한 수림으로 변모된 풍치림과 100정보의 수목원 등이 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 모든것은 선대수령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끝 없는 충성심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의 결과이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최고성지와 더불어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일본고등학교 력사외곡교과서 검정통과는 전고미문의 범죄행위

조선중앙통신 론평

최근 일본당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전면 외곡하고 미화분식한 고등학교 력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또다시 검정에서 공식 통과시키는 전고미문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번에 검정통과된 교과서의 일부 내용들이 수정될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일본 특유의 력사외곡행위의 졸렬하고 파렴치한 수법만을 부각시켜 주고 있을뿐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의 어용사가들이 ≪최신일본사≫에 조선의 신성한 고유령토인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고 마치도 우리가 일본의 령토인 ≪다께시마≫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강도적론리와 함께 ≪임나일본부≫설을 꺼리낌없이 서술한 반면 ≪종군위안부≫범죄와 같은 특대형의 범죄행위들은 모조리 삭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신일본사≫가 수정된것이 아니라 독도문제를 ≪미해결≫문제라고 서술하고 있는 현 고등학교용력사교과서보다 더욱 더 개악되였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참으로 일본의 파렴치성과 정치도덕적저렬성에 한계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독도가 조선의 고유령토라는것은 론의할 여지조차 없으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 역시 그렇다.

일본은 4세기 이후 수백년동안 조선의 남부지역인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하고 지배해왔다는 황당한 설을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북남력사학자들과 량심적인 일본력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날조품이라는것이 확증된 문제이다.

일본에도 이러한 력사의 본질을 꿰뚫어 볼줄 아는 지성인들이 있고 또 력사외곡책동이 가져 올 파멸적후과를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여 이런 력사외곡행위가 정부당국의 공식승인하에 뻐젓이 감행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치욕스러운 범죄행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 버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사상으로 길 들여 해외침략에로 내몰려는 우익보수정객들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

력사외곡행위 그 자체는 력사과학의 신성한 리념과 사명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며 범죄행위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번의 추악한 력사외곡행위로 하여 빚어 지게 될 력사적 및 정치도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을것이다.

영화상영순간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영화상영순간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였다.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영화상영순간에 전국의 모든 영화상영단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어버이수령님의 걸출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보여 주는 기록영화들과 예술영화들을 상영하게 된다.

또한 우리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과 선군령도업적을 수록한 수십편의 기록영화들과 예술영화들이 상영되게 된다.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영화상영순간 중앙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 등이 참가하였다. 이날 각도들에서도 영화상영순간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태양절기념 회고무대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텔레비죤회고무대 ≪애국애민의 한평생≫이 11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고무대에는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비전향장기수들, 연고자들, 영웅들, 공로자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그들은 조선을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으로, 조선인민을 이 세상 가장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주신 주석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인민의 수령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주석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우던 투쟁과 위훈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주석의 혁명생애는 세기와 더불어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김일성**주석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인민과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여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의 전도는 더욱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새기였다.

태양절에 즈음한 행사들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직맹원들과 녀맹원들의 맹세모임이 11일 진행되였다. 직맹원들의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파란만장의 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조선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전환의 새 력사를 열어 놓으시고 자주시대의 년대기에 영원불멸할 세계사적공적을 이룩하신 걸출한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더욱 빛내여 나감으로써 수령님의 력사가 이 땅에 영원히 흐르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날 녀맹원들의 모임에서도 전체 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조선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조선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축하편지를 11일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가 백남순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여러 나라 일군들 금수산기념궁전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1일 조선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그이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그이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주석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들과 메달들, 울음훌, 주석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를 돌아 보았다.

조선주재 외국손님 여러 곳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1일 전승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신데 대하여서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 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 주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과 사료들을 돌아 보았다.

손님들은 주석께서 리용하시던 사무실, 회의실, 갱도 등을 돌아 보고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무관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무관단성원들은 **김일성**주석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고향집주변에서 기념식수를 하였다.

무관단은 이날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현지지도 50돐기념 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평안남도 평성시 백송리에 자리잡고 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50돐기념 보고회가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격렬하게 벌어 지고 있던 주체41(1952)년 4월 12일과 13일 백송리에 자리 잡고 있던 대학을 찾으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대자연개조사업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시면서 교직원, 학생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학에서는 주석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대학이 백송리에 자리 잡고 있은 2년기간에만도 600여명의 대학생들을 졸업시켜 국가기관의 중요한 위치에 파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리길송책임비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현지지도에서 하신 가르치심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13차 전국청소년들 충성의 축전페막

제13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이 페막되였다.

이번 축전에서 온 나라 청소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전투적기백,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다.

축전페막식이 1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정치축전, 경제축전, 예술축전, 체육축전으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서는 평양시단체가 종합 1등을, 함경남도단체와 평안남도단체가 종합 2등과 3등을 하였다.

발전노조, 노조 탄압 지속시 제2의 총파업 강행할 것

발전노조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저지 범국민대책위는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앞에서 1백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노조 탄압과 발전소 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와 한국전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회사측이 파업 이후 현장으로 복귀한 발전노조원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노조 탄압을 지속할 경우 제2의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노조원들은 복귀이후, 복귀서와 함께 노조활동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당하는 등 정부와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 이들은 ≪정부가 강요하는 서약서는 벗어날 수 없는 노비문서≫라고 격노하며, 지부별로 서약서 강요를 거부하는 결의대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사측의 징계위 심의시 불이익 조치나 보직을 주지 않겠다는 위협과 함께 강요하는 서약서 작성은 ≪우리 나라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보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3시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측의 서약서 강요 등 현장탄압은 양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발전노조는 지난 3월 파업기간중 경찰의 조합원 무차별적 연행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진정한 것에 이어 2번째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됐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발전노조 유병철 정책기획 실장에게 지난 파업으로 해고된 발전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실장은 ≪해고 노조원들이 살고 있는 사택 중 전세 계약자들의 집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 해고된 노조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부당 해고된 사람들을 위해 부당 노동해고 조정신청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발전노조에게 교섭자격을 위임받아 타협안을 체결한 후 민주노총에 대한 발전노조원에 대한 실망감 등에 대해 유실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시 대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발전노조 관련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38일간 열성적으로 진행된 발전노조 투쟁을, 교섭위임자들의 오판으로 난항에 빠지게 한 것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노총과 발전노조는 노동자의 입장을 최대로 생각하며 다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3

44개단체 구로 경찰서장 사퇴요구

시그네틱스 노동 조합 ≪불법 알몸수색 규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2일, 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의 집회과정에 경찰의 진입으로 25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연행되었고 이중 일부는 구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구로 경찰서는 입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경찰은 신체검사실에서 이들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였고 신체검사를 하던 여경은 ≪끈이 달린 것은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몸 구석구석을 만져가며 검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시그네틱스 노동 조합과 44개 사회단체는 4월 11일 오전 11시, 구로 경찰서앞에서 ≪불법 알몸수색 규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 경찰서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1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자진 사퇴하고 관련 수사관들을 파면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 서장은 ≪정밀 신체검사는 죄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지만 자해우려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다≫며 ≪보고 받기로는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대표단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권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비단 시그네틱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전체 여성의 인권문제. 여성의 알몸 수색이라는 반 인권적 행위≫라 설명하고 구로경찰서장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은 ≪인권의 시대라는 21세기에도 이런 식의 성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에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며 ≪경찰이 노동자들에 대한 편협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도 큰 문제≫라 말했다.

참세상뉴스 2002/04/13

대우조선 불법파견저지 및 노조활동폭력탄압 규탄대회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및 민주노총경남본부. 대우조선노동조합 은 지난 4월4일 대우조선 탑재1부에서 일어난 민정추회원. 인력관리부, 현장관리자들이 자행한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불법파견근로 금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 를 4월 11일 거제 대우조선 서문앞에서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조합원 및 부산. 경남지역 금속조합원과 부산, 경남지역 노동.사회단체회원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우조선 강봉우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회사측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이었고, 이때의 심정은 신나를 끼 얹은 몸에 라이타를 켜고 싶을 만큼의 절박한 심정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저들의 폭행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현 노조 집행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노총 거제 시협 박명규 부의장은 규탄사를 통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대우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난에서 탈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수 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경영합리화라고 부른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중공업 위원장, 민주노총 경남금속 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날 대우조선 상집간부들의 폭행사건 등 노동자의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해결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분쇄 할 수 있다≫ ≪경남금속도 본부 산하 조합원들의 일치된 단결로서 분쇄하자고 하면서 경남도본부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복 차림으로 규탄대회에 참가한 상집간부들은 이번 폭행사건 및 불법파견근로 금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갖기 위해 상집간부들의 삭발식이 있었다.

참세상뉴스 2002/04/12

한총련, 합법화 촉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1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10기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결 확산되고 있다.

한총련은 1997년 검찰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에 이어 9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가 되었다.

당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배경에는 96년 연세대 통일집회와 97년 ≪프락치치사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정권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벌인 ≪마녀사냥≫이 깔려있다.

우리는 한총련도 자성하고 있는 ≪프락치치사사건≫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이적단체 규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더구나 5기 한총련 이후 집행부는 해마다 바뀌어왔다.

9기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이적단체≫의 근거로 지적했던 연방제 통일방안 강령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은 계속되어 지금까지 1300여명의 구속자와 300여명의 수배자를 낳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총련 노선의 옳고 그름을 따질 생각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적 선출로 대학인이 구성한 총학생회를 무조건 구속하는 ≪일방성≫에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사회에서 대학인들이 자유 · 평등 ·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학생회조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한총련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학인들이 대학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지 공안당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때마침 한총련은 10기 출범을 앞두고 ≪강령개정 공청회≫를 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인사들 대다수가 동참한 ≪한총련합법화범사회인대책위원회≫도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마녀사냥≫에 이제 종언을 고할 때다.

인터넷 한겨레 2002/04/13

한총련대의원대회, ≪진보정당 대토론회≫진행

지난 12일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는 올 6월에 있을 지자제 선거와 12월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를 두고 ≪진보정당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 민주노동당 학생대표 김형상, 민주노동당 정성희, 전국연합 안호국,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강병기, 범민련 남측본부(범민련) 김세창씨다 . 토론회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민주 진영의 목표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경선 △대선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대중들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의 연대 · 연합 수준을 높여 선거와 관련된 진보정당 추진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공통적인 제기였다. 또 6.15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지키면서 보수정당과의 차별화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 안호국: 사람들은 쉽게 민주당을 개혁, 한나라당을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 쟁점은 첫째, ≪6.15공동선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부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셋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지금 정권이 하는 개혁은 기층민중을 위한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통을 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은 남과 북의 올바른 통일이 아니다. 한편 무엇보다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을 세우기 위한 범국민추진위원 본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범민련 김세창: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6.15공동선언에 의해 ≪애국하는 사람과 민족의 반역자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신자유주의 과정에서도 역시 미국의 본질적 부분 또한 중요하게 얘기 될 것이다. 그 부분에서 민족민주세력과 보수세력을 나눠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농 강병기: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족민주세력의 정책이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한총련 학원자주화 위원장: 지금의 정세와 시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교육시장 개방, 사회민주화 부분에서 학생의 역할 또한 얘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학생대표 김형상: 2002년 청년학생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울 수 있는가? 를 고민하면서 수구보수 세력을 반대하고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대학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활동이 요구되며 학생운동의 단합 또한 중요하다.

대선을 두고 처음에 ≪이회창 대세론≫이 제기 되었으나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했던 이회창에 대해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폭발적 분노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민중들은 국민경선을 하는과정의 진일보한 선거분위기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욱 강력한 대안의 정책정당인 진보정당이 세워져야 할 것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2002년 대선에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민주노동당 학생대표 김형상씨는 ≪학생운동이 연대 · 연합하는 속에서 진보정당 학생추진위≫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유뉴스 2002/04/13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희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났다고 한다.

집시법 개정안은 1회에 개최할 수 있는 집회기간을 7일로 한정했으며, 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을 때는 취소신고를 하게끔 규정했다. 장기간의 위장집회 신고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던 것을, 50미터 이내 집회에 한하여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하지만 박종희 의원실 이종현 보좌관은 ≪위장집회 금지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사관 주변 금지규정은 반대의견에 부딪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게 됐다≫며 법안통과에 난항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려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시위양상이 불법 · 과격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도심지 대규모 행진 · 소음시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민련은 14일 전경련 김각중 회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경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집시법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김창성 회장은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다중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경찰과 경제단체들이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붙으면 (작년에 준비해 놓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청원도 하고, 피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1인 시위 등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용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04/13

인권유린, 국정원권한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

1. 상황

–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대 테러 센터≫를 주도하는 조항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 독일 연방의회 법사위의원들은 4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테러방지 국제공조 토론회에서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대 테러 센터≫를 장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4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날 회의가 비록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나, 이른바 ≪테러방지법≫ 입법 기도가 강력히 자행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

일시, 장소 : 2002년 4월 15일 오전 1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에서 국회 방향 전진 삼환빌딩앞 지점

주최 : 민족자주 · 민주주의 ·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8)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 2

미국에게는 남(한국) 지배권을 장악 ·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 ·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면 남(한국)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제국주의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워싱턴에 포진하고 있는 제국주의 전략가들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 ·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 선택의 벼랑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이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 · 유지하는 전략문제를 놓고 처해 있는 곤경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닉슨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이 베트남전쟁에서 퇴각하는 전략문제를 놓고 처해 있었던 곤경과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30년 전의 미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중미 정치협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워싱턴을 주름잡았다는 제국주의 전략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당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과 정치협상을 벌이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 기밀해제된 미국의 비밀자료에 의하면, 1971년 7월 9일에 있었던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비밀회담에서 키신저는 북베트남과의 종전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과 베트남전쟁이 끝나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철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고, 그와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로서 반드시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 회담에서 키신저는 ≪우리의 입장은 남베트남에서 어떤 특정한 정부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보다시피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 전복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 그 정부가 전복되더라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2002년 2월 28일자) 키신저는 1974년에 당시 대통령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에게 제출한 1급 비밀 비망록에서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1977년 초까지 대만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하면서 그와 더불어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1999년 5월 15일자)

1971년에 있었던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비밀회담 이후의 동아시아정세는 그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정치협상에서 ≪베트남에서의 평화재건 및 전쟁종식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자마자 3월 29일에 ≪미국-남베트남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남베트남 지배권을 포기하였고, 6년뒤인 1979년에는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대만 지배권을 포기하였다. 남베트남 지배권의 포기는 종전과 평화, 자주와 통일로 이어졌고, 대만 지배권의 포기는 미국과 대만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대만에 주둔시켰던 미군을 1979년안에 모두 철수시키고, 미국이 대만과 맺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시키는 조치로 실행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는 과정과 중미 수교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미 수교협상에서 남

➡

광고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보도집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보도집을 발간합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들의 한 대오로서 최근 발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25일은 통일혁명당중앙 창당기념일이며 3월 15일은 통일혁명당서울시당 창당기념일입니다.

지난 기간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중요계기마다 민족민주운동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이 그간 발표한 보도는 21회입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의 보도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관점에서 각종 성명, 담화, 논평 등을 발표하며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보도집은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정세관과 조직투쟁노선을 계기별로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4월 8일

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 그 약속대로 포기하였던 것이다.

2002년 2월 부시가 남(한국)을 방문했던 때로부터 꼭 30년전인 1972년 2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Richard M. Nixon)과 국가안보담당보좌관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하였고, 상하이에서 중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공동성명은 그 뒤로 8년동안 진행되었던 중미 수교협상의 근거가 되었다. 1978년 12월 중미 수교를 위한 제2차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1979년 1월 1일 중미 두 나라는 8년 동안의 수교협상끝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닉슨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은, 베트남민족의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에 떠밀려 베트남전쟁에서 패퇴하면서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한꺼번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의 전략적 포기를 확인하였던 중미 비밀회담이 열렸던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은 한(조선)민족의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에 떠밀리면서 비확산체제 유지냐 아니면 남(한국) 지배권의 포기냐 하는 전략적 택일의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나는 미국이 30년전에 그러했듯이 결국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 나서지 않고 공갈발언이나 하면서 계속 버틸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번째 인공위성을 탑재한 ≪백두산 2호≫의 발사준비를 명령할 것이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 끌려나온 뒤에도 ≪확실한 검증≫이요, ≪재래식군비감축≫이요 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남(한국) 지배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경우, 그 협상은 결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발사체 ≪백두산호≫의 연속발사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며,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중심부에는 결국 붕괴의 파열구가 뚫리게 될 것이다.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비확산체제 존폐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초강대국의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이따금 공갈발언이나 내뱉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부시 행정부는 30년전에 닉슨 행정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적대국과의 정치협상에 끌려나와 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앞으로 조미 정치협상이 진행되는 몇 년동안의 과정에서 두 나라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북(조선)이 대량파괴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거나 수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조선)반도의 통일과정에 간섭하지도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보증을 북(조선)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조미 국교수립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를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최대 문제로, 더 나아가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계정치문제로 여기고 있는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를 이용하여 한(조선)민족이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통일된 자주강국을 건설하는 민족사 최대의 과업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준동을 억제하는 반제자주위업의 전략적 과제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시종 주도하게 될 조미 정치협상에서는 한(조선)민족의 자주위업과 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준동에 억제력을 발휘하는 승전보가 들려올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의하여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 2003년이 가까워올수록 부시 행정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악의 축≫ 폭언이 나왔던 2002년 1월 29일 미국 연방의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부시는 ≪시간은 우리편에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부시가 ≪악의 축≫ 폭언을 내뱉은 그 다음날 백악관 대변인 애리 플라이셔(Ari Fleischer)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명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차츰 풀이 죽고 기가 꺾이어 조미 정치협상에 끌려나올 것이며, 결국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유지와 남(한국) 지배권의 포기를 맞바꾸게 될 것이다. 한때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이었으며 한(조선)반도 군사문제에 관한 권위있는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리온 시걸은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2001년 6월 23일자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조미 정치협상의 경험에 관하여 이러한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다.

≪미국의 역대 모든 행정부는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거부(denial), 분노(anger), 흥정(bargaining), 좌절(depresson), 수용(acceptance)의 다섯 단계를 밟아왔다.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협상에서 발을 잘못 들어놓았던 경험을 상기할 때, 새 행정부도 그들처럼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지켜보자니 괴롭다.≫

과연 리온 시걸이 괴로움을 안고 지켜보고 있는 대로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내뱉으면서 ≪거부≫와 ≪분노≫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적어도 올해 안에 ≪흥정≫의 단계로 들어설 것이다. ≪흥정≫의 단계는 ≪운명의 시간≫ 2003년에 가서 ≪좌절≫의 단계로 이어질 것이며,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로 마감될 것이다. 부시는 마지막 ≪수용≫의 단계에서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하고 한(조선)민족의 평화통일과정에 개입하지도 간섭하지도 말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조미 정치협상을 앞두고 있는 부시가 1970년대의 중미 정치협상에 나왔던 두 명의 미국 대통령 닉슨과 포드의 발자취를 다시 밟아가게 될 정치적 행로는 그렇게 예비되고 있다.

(끝)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4)

21세기 김정일시대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 권위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숭고한 덕망에 의거해야만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령의 덕성은 사상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과 함께 민중이 수령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효성으로 수령의 위업을 실현해나가게 하는 견인력의 원천이다.

민중은 민족과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며 민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위대한 수령을 충효성을 다해 받들어나간다. 수령의 숭고한 덕망은 바로 민중의 충효성의 원천이며 불패의 단결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고 강화해나가는 견인력이며 수령의 위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죽어도 수령의 품 속에 돌아가겠다는 혁명적 의리를 낳게 하는 실제적 담보이며 통일운동의 대하를 이룩하게 하는 추동력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숭고한 덕망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어 존엄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고 믿음이다. 민중이 역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지난 시기에는 민중의 존엄과 가치를 이렇게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삶을 사회적 인간의 삶의 최고절정에 올려세운 이러한 정치철학,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펼쳐질 수 없었다.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 그 품에 안겨 수령과 민중이 일심일체를 이루고 충효성을 다해나가게 하는 원천과 견인력이 있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숭고한 덕망은 또한 민족과 민중에 대한 가장 열렬한 헌신이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중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찾으시어 무릎을 마주하시고 가정생활로부터 나라의 정사에 이르기까지 의논하시며 민중의 요구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풀어주시며 민중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찾으신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언제나 민중을 하늘이고 선생이라고 하시며 이민위천의 정치를 펴시고 이신위민을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며 민중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하늘의 태양, 선생의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복을 타고난 민중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숭고한 덕망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민족통일위업에 나서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고 견인력이며 추동력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분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가 있는 것이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의 최고대표자는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뇌수이며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주체적 역량으로 결집시키는 단결의 중심이며 민족의 자주위업을 이끌어나가는 영도의 중심인 수령이다. 민족생명의 중심인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민족자주위업은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 권위는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위업완성의 기본열쇠이며 결정적 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절대적 권위를 그대로 계승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과 영도, 덕망의 위대성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그 어떤 힘도 초월하는 견인력과 감화력, 추동력을 가진 위력한 권위, 가장 높으신 권위이다. 그것은 곧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김정일**영도자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비상한 견인력이며 온 민족이 **김정일**영도자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이론,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나서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이며 제국주의와 반동세력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그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수는 철추로 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영도, 인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셨기에 우리 민족은 온갖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과 민족분열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나갈 것이다. (끝)